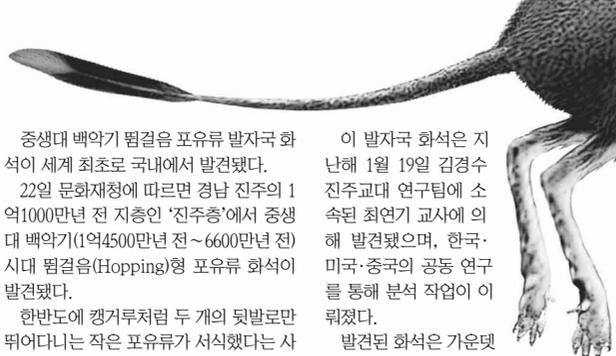


# 1억년 전 한반도 두발로 뛰는 포유류 있었다

### 진주서 길이 1cm 동물 발자국 발견...캥거루쥐와 비슷 백악기로는 세계 최초...남부지역 종 다양성 풍부 입증



코리아살티페스 진주엔시스 복원도

중생대 백악기 뿔겔음 포유류 발자국 화석이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발견됐다.

22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경남 진주의 1억1000만년 전 지층인 '진주층'에서 중생대 백악기(1억4500만년 전~6600만년 전) 시대 뿔겔음(Hopping)형 포유류 화석이 발견됐다.

한반도에 캥거루처럼 두 개의 뒷발로만 뛰어다니는 작은 포유류가 서식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한반도에서 중생대 포유류 화석이 나온 것도 이번이 최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주 호탄동 익룡·새·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에서 약 200m 떨어진 충무공동 135번지에서 중생대 백악기 포유류의 뒷발자국 화석 9쌍을 찾아냈다.

이 발자국 화석은 지난해 1월 19일 김경수 진주교대 연구팀에 소속된 최연기 교사에 의해 발견됐으며, 한국·미국·중국의 공동 연구를 통해 분석 작업이 이뤄졌다.

발견된 화석은 가운뎃발가락이 가장 길고, 발가락 사이 간격이 좁고 비슷하다. 발가락들의 크기와 모양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포유류의 발자국이 확실하다는 게 연구소 측의 설명이다.

발자국 하나의 지름, 즉 발길이는 대략 1cm다. 왼발부터 오른발까지 너비는 2.1

cm, 발자국 화석 9쌍의 총 길이는 32.1cm, 평균 폭은 약 4.1cm이다.

이 동물의 몸집 크기는 10cm 정도로 오늘날 사막과 초원에 사는 캥거루쥐와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뒷다리가 상당히 길고 강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 관계자는 "중생대 백악기에 살았던 작은 포유동물은 나무 위나 땅속에서 생활하며 밤에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동물은 커다란 육식 동물과 악어, 익룡 등 천적의 공격에서 빠르게 벗어나기 위해 두 발로만 다녔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화석은 한국 진주(진주층)에서 발견된 새로운 종류의 뿔겔음 형태 발자국을

의미하는 '코리아살티페스 진주엔시스'(Koreasaltipes Jinjuensis)로 명명됐다.

지금까지 뿔겔음형 포유류의 발자국 화석으로는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된 중생대 쥐라기(2억1000만년 전~1억4500만년 전)의 '아메기니크누스'(Ameghinichnus)와 미국에서 발견된 신생대 마이오세기(2303만년 전~533만년 전) '무살티페스'(Musaltipes) 등 2개 뿐이다.

이번에 국내에서 발견된 코리아살티페스 진주엔시스는 아르헨티나와 미국에 있는 화석과는 발가락 형태와 각도, 길음의 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고, 뿔겔음 형태가 가장 명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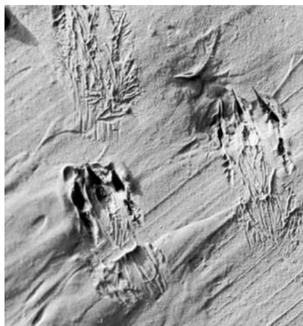
특히, 중생대 포유류의 화석이 발견되면서 한반도 남부가 종 다양성이 풍부했다는 사실도 입증됐다. 이전까지 이곳에서는 공룡·익룡·도마뱀 같은 파충류와 새의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바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백악기 연구'를 통해 지난 7일 공개됐다. 연구소는 이 화석을 내년 하반기부터 대천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 진주서 발견된 뿔겔음 포유류 화석과 다른 발자국 비교



코리아살티페스 진주엔시스



캥거루쥐



네오사우로피테스 코리아엔시스



진주 호탄동 익룡

## '포켓몬고' 한 달...하루 387만명 쓰지만 사고 위험 여전

위치기반서비스(LBS)와 증강현실(AR)을 바탕으로 한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가 한국 출시 한 달을 맞았다. 지난달 24일 국내에 지각 출시된 '포켓몬고'는 한파 속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최근에는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 속에 인기가 한풀 꺾이는 양상이지만, '반짝 흥행'으로 끝날 것으로 치부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안드로이드폰 이용자 약 2만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포켓몬고 출시 이후 이달 19일까지

지 약 4주간 하루 이용자 수는 평균 387만명으로 추정됐다.

포켓몬고 하루 이용자 수는 출시 5일째인 지난달 28일 52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해 이달 16일 287만명까지 줄었다가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된 17일부터 회복세를 보여 19일에는 349만명을 기록했다. 주간 사용자 수는 평균 649만명으로 파악됐다. 일주일 동안 65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 차례 이상 게임을 해봤다는 의미다. 게임을 지우지 않고 있는 설치자는 19일 기준 809만명으로

추정됐다.

포켓몬고는 구글 플레이의 국내 게임 매출 순위에서 '리니지2 레볼루션'에 이어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한때 매출 순위가 4위까지 하락했으나 21일 기준으로는 2위를 회복했다.

포켓몬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에는 인파가 몰려들었다. 용산 전쟁기념관과 부산 유엔기념공원 등 역사적 장소들이 포켓몬고 명소로 알려지면서 화제로 떠올랐다.

갯까지 부작용도 속출했다. 출입금지지역에 무단 침입하거나 차를 타고 포켓몬

을 쫓다 곡에 운전하는 사례들이 이어졌다.

지난 7일 대전에서는 포켓몬고를 하던 30대 운전자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기도 했다. 급기야 경찰은 운전 중 포켓몬고를 이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나섰다.

온라인에서는 레벨을 쉽게 올리기 위해 위치정보(GPS) 조작, 자동 사냥, 계정 거래 등이 성행했고, 게임 진행을 돕는 보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커졌다.

하지만 출시 2주차에 들어서면서 포켓몬고의 인기는 주춤하기 시작했다. 출시 11일째인 이달 3일 하루 이용자는 414만명으로 정점 대비 21% 감소했다. /연합뉴스

## AI 번역, 인간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다

### 구글·네이버·시스트란과 대결...인간이 압승

지난 21일 인간 번역사와 인공지능(AI) 번역기 간의 번역 대결에서 AI 번역기 가운데 가장 나은 결과를 내놓은 것은 구글 번역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 네이버, 시스트란이 참여한 한국어-영어, 영어-한국어 번역 대결에서 구글 번역기가 총점 28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네이버 파파고는 17점으로 2위, 시스트란 번역기는 15점으로 3위였다. 구글 번역의 품질이 네이버와 시스트란 번역보다 산술적으로 2배 가까이 낫다는 평가다.

인간 번역사가 60점 만점에 49점을 받아 AI 번역기보다 월등한 점수를 기록했지만, 통·번역 부문에서는 AI가 아직 인간 수준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이 정설이어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세 가지 AI 번역기에 대한 절대 평가에 더 주목했다. 행사 주최 측이 각 회사의 서비스명을 익명처리 했으나, 업계 안팎의 높은 관심도에 급세 소문이 퍼졌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구



지난 21일 서울시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인간 대 AI 번역대결'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번역기를 이용해 번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글은 알고고를 만든 회사라 그런지 번역 수준이 상당히 놀라웠다"며 "시스트란은 비즈니스 전문 번역 회사여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KT·항우연, 오차 범위 1~2m GPS 개발

KT 컨소시엄이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초정밀 위치정보시스템(GPS)을 개발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KT 컨소시엄은 KT와 위성 전문 계열사 KT SAT(케이티셋) 등으로 구성됐으며, 항우연의 한국형 SABS(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개발 프로젝트 'KSS(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장비 제작 및 구축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SABS는 초정밀 GPS 보정 시스템이다. 현재 30m에 달하는 GPS 오차를 1~2m로 줄여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안

정성을 높이면서 연료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다.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안전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SABS 개발 프로젝트는 항우연이 2014년부터 총괄 해왔다. KT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습득한 기술과 노하우를 재난 안전,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 등 위치 기반 사업에 접목할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초정밀 GPS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 안전, 교통,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화한 서비스를 가장 먼저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과학관 사이트 접근성 국가공인 획득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강신영) 홈페이지가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에서 인증하는 WA(Web Accessibility·웹 접근성)인증마크를 취득했다.

WA 인증마크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접근 약자가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표준지침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국가공인 품질마크다.

광주과학관은 지난해 12월 이용자의 접근성과 가독성을 고려해 재설계한

홈페이지를 선보였다. 간편 예약시스템을 도입해 야간 천체관측 행사 등 다양한 행사 예약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과학관 관계자는 "최근 홈페이지는 물론, 과학관 블로그도 동시에 개편하면서 방문객들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 관람객들은 물론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

## 투자가치 좋습니다!

###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번지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팟섬, 비금도내에 있는 섬
- 향후 개발시 100억 가치
-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지분 / 분할 매매 가능
- 매매 - 14억
- 주인직매
- H. 010-3605-5000

## 나주, 전원주택단지

- 전남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건너편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백운동 25분,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거리
- 전원주택 허가 필,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나주호 휴양림 / 둘레길 진행중
- 매매 - 평당 80만원 (일시불 조정가능)
- 주인직매
- H.010-3605-5000

## 3년안에 대박 납니다!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씩 분양중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
- 주인직매
- H.010-3605-5000